

장항 시민들의 인터뷰

사진을 터치해보세요

1940년대



1950년대



1960년대

1970년대



1980년대



1990년대



뒤로가기

다른 분들의 인터뷰도
눌러보세요

서현석

김동욱

김봉희



長項新聞

- 성함 | 곽상욱
- 직업 | 도선사무소 근무
- 나이 | 1951년생(1950)
- 거주기간 | 68년
- 거주지점 | 1950년대



1970년대의 장항



실제 인터뷰 듣기

“저는 대전에서 태어났어요. 96년에 풍농에 입사하였죠.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하는데 우연히 가게 된 충남 중소기업 박람회 통해 풍농에 입사하게 되었어요.” “군 생활을 서울에서 했어요. 그래서 서울에서 사는 것은 좀 지겨웠는가 봐요. 그리고 당시에는 지방이 월급을 좀 더 줬어요. 특별히 풍농이라는 기업에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라 조금더 나은 보수 조건에 끌려 장항에 내려오게 되었어요.” “제가 입사했을 당시만 해도 장항의 인구가 2~3만명이었요. LS메탈, 풍농, 태평양, 한솔 등 직원들이 많았거든요. 그런데 IMF 이후 사람들이 많이 감소했죠. 그 때 인원 감축이 되고 공장들이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. 그리고 태평양이나 한솔 같은 회사들은 직원들이 군산, 익산, 전주 등에서 출퇴근해서 실제 장항에 사는 사람들이 적구요. 풍농은 직원을 채용할 때 장항에 사는 사람 위주로 뽑아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장항 사람들이 많아요. LS메탈 경우도 사택(아파트)가 있으니깐 장항에서 많이 살고 있구요.. 초등학교에 가면 50%가 풍농 자녀이고 50%가 LS메탈 자녀예요.” “장항은 아무래도 일자리가 부족해요. 요즘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풍농에 입사 원서를 많이 내고 공장에서 일하고도 있어요. 그런데도 아직 일자리가 부족해요.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 주거 문제도 해결되어야하고 문화시설도 있어야 젊은이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해요. 공장이 많이 생겨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”